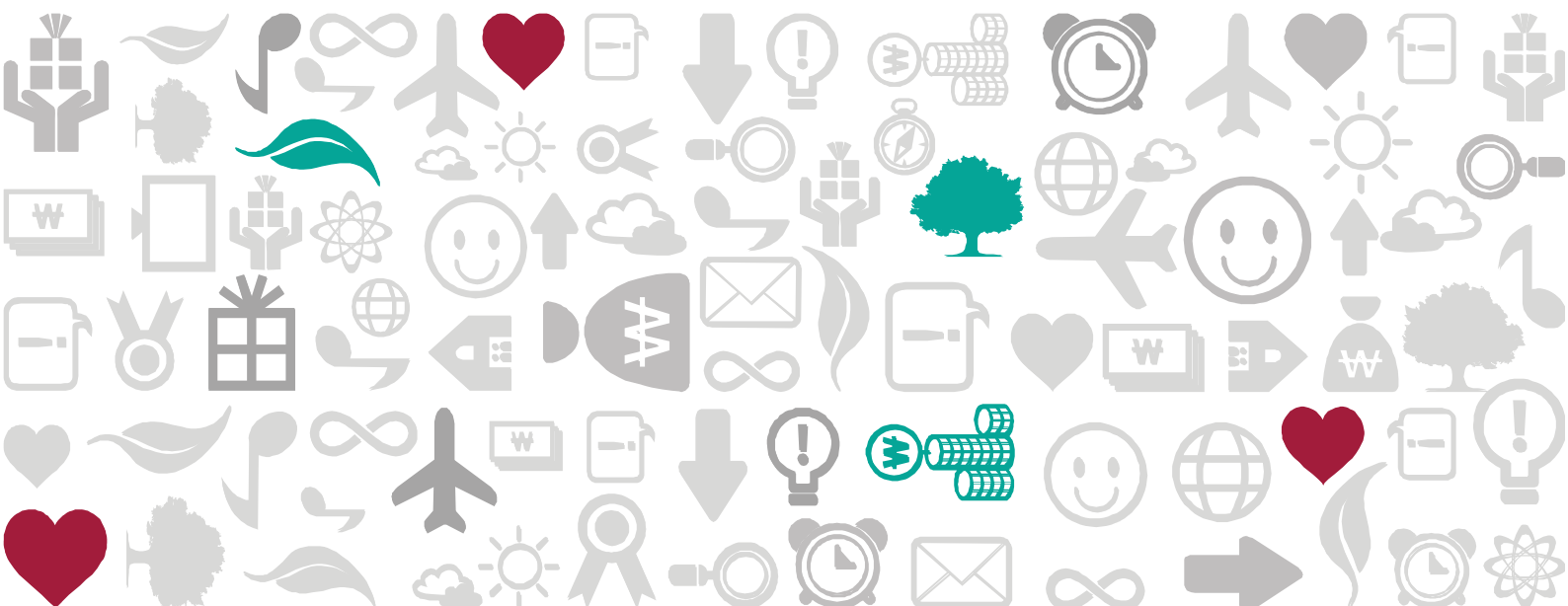


온퇴설계를 위한 하나 행복가이드

유연신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호주연금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 - 7252



Contents

이슈 포커스	유연신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호주연금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01
노후 재무설계	40대 김보통씨, 주택연금 활용과 금융자산의 적극적 운용 요구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적극투자형 전략이 유효 투자상품은 주식을 중심으로 하는 혼합형 상품 구성이 필요 2월 주식시장은 변동성 높은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09
국내외 단신	온퇴위험지수(NRRI), 2010년 대비 크게 나아지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예정 목표지향형 온퇴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	14
상품브리프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공백기를 대비하는 연금형 정기예금	18
행복한 노후디자인	행복한 온퇴디자인을 위한 연령대별 전략	20
하나 뉴스	하나은행,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나눔적금' 새롭게 출시 등	23
연금 통계		24

“ 유언신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수석연구원 이 경 진
(cygnus@hanafn.com)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부유한 고연령층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언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 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 취급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혜택 부재, 운영상 비효율성 등의 제약요인으로 유언신탁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 시장에서는 상속형 신탁에 대한 제도 및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상속형 신탁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상속형 신탁 상품을 고연령층 인구의 자산관리 및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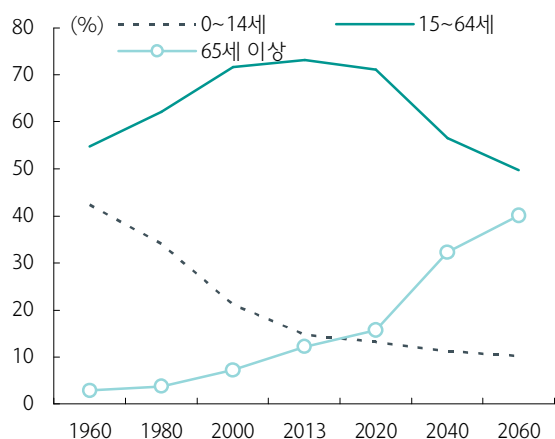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취급이 가능해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총인구 대비 비중은 2013년 12%에서 2060년 40%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소득이 높은 소득 5분위 가구주의 연령별 가구소득을 보면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가구소득이 1억원으로 부유층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부유한 고연령층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12년 9월부터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잠재 수요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법 개정안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도입을 명시함에 따라 신탁 가능 자산의 범위확대로 개인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자를 연속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상속 관련 신탁상품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고령인구의 자산관리 및 상속 상품 관련 니즈 증가에 부응하여 유언신탁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연령별 총인구 대비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 통계청, '2013 고령자 통계'

상속형 신탁상품을 통해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상속설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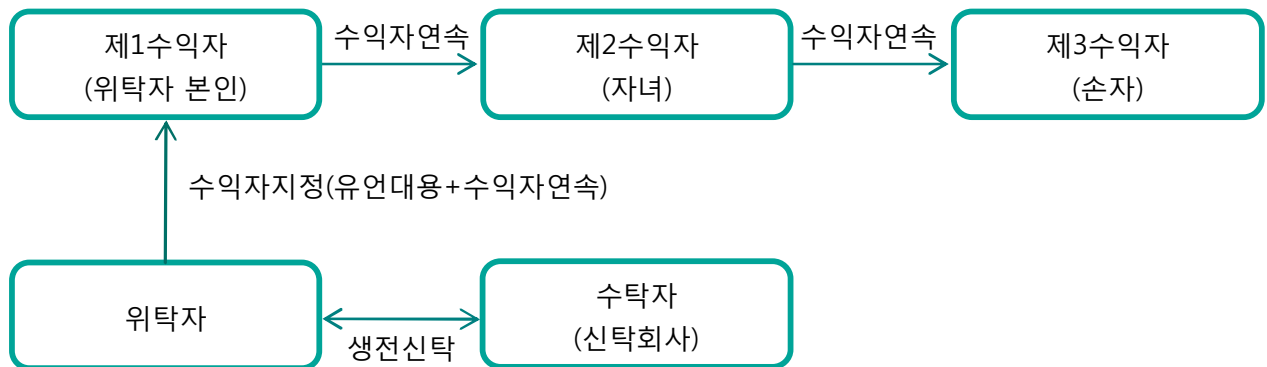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체결하는 생전신탁(living trust)의 일종으로 생전에 금전, 증권, 부동산 등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하여 계약에 따라 위탁자산을 관리해주고, 사후에 신탁계약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한 상품이다. 즉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위탁자산에 대해 생전 관리기능과 사후 관리기능을 모두 제공한다. 이는 기존의 유언신탁과 가장 큰 차이로 기존의 유언신탁은 그 효력이 위탁자의 사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유언에 따른 상속관리만 담당하는 사후신탁에 해당된다.

특히 최근 법무부 산하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확정된 민법 개정안에서 상속 재산의 50%를 생존 배우자에게 먼저 할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만약 확정된 내용대로 입법 된다면 부유층 자산가 및 기업인들의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취분은 피상속자가 사망한 뒤에 생기는 권리이고,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금융회사와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 재산 분할 비율을 적용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 복수의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수익자가 되는 구조의 상품으로 미국 등 선진 신탁시장에서 상속과 관련하여 활성화되어 있는 방식이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신탁의 수익권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어지면서도 신탁재산의 관리의 최초 위탁자가 신탁계약으로 지정한대로 신탁회사가 관리하므로 후손의 자산관리 실패나 낭비 등으로부터 위탁자의 의도대로 지켜낼 수 있는 상품이다.

향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결합한 형태의 상속설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속형 신탁 상품의 활용도가 증가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예를 들면 위탁자가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을 제1수익자로 하고, 자녀를 제2수익자, 손자를 제3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신탁회사는 위탁자 생존 시에는 제1수익자인 위탁자 본인을 위하여 신탁자산을 관리 및 운용하여 신탁의 수익을 지급하고, 위탁자 본인이 사망하면 제2수익자인 자녀가 신탁의 수익자가 되어 신탁의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제2수익자가 사망하면 이후 제3수익자인 손자가 수익자가 되는 방식으로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하여 설계 가능하다.

상속형 신탁(유언대용+수익자연속) 상품 구조



| 자료 : 금융투자협회

세제상 혜택 부재, 운영상 비효율성 등이 유연신탁시장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국내에서는 2010년 하나은행이 신탁관련 상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한 가운데, 신탁법 개정 직후 하나대투, 우리투자, 한국투자 등의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상품출시 이후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제도적인 유인성 부족과 상품 운영상의 제한적인 여건, 정서적인 이유로 유연에 대한 거부감 등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유연대용신탁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개인고객 입장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세제 혜택이 없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초기 개인신탁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상속·증여에 따른 세제상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헌한 바가 크다. 상속·증여세 절감 혜택과 더불어 전문가를 통한 자산관리, 유연검인(Probate) 절차 면제 등 상속·증여수단 등 신탁 활용 수요를 증대시킬 유인이 충분하게 제공되었다.

다음으로 신탁회사 차원에서 상속형 신탁을 활성화 시키는데 대한 제한적인 여건으로는 운영상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유연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결합하

여 상속형 신탁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자산관리 측면의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에서도 종합재산신탁이 허용되어 취급 가능하나, 개정 신탁법에서도 종합재산신탁의 구체적인 운용에 대한 제시가 없고, 집합운용이 금지되어 있어 금전과 부동산을 동시에 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통합하여 운용될 수 없어 관리상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단독운용신탁만 수탁이 가능하나 단독 운용시 발생하는 효율성과 관리비용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투자목적이 같은 신탁자금을 모아서 공동으로 운용한 후 투자성과를 배분하는 공동운용기금(CIF)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 도입된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과세시점 등에 관한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수익자연속신탁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신탁회사가 없는 형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익자 연속신탁은 원본과 수익에 대한 권리가 분리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시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신탁수익권의 교부시 제1수익자로부터 제2수익자에게 해당 신탁재산 모두가 상속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속형 신탁 관련 제도 비교

구분	한국	해외
세제혜택	없음	미국: - 배우자(미국 시민권자)에게 신탁을 활용하여 증여 및 상속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면세 혜택 - 생전에 설정된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이 설정된 시점에 과세가 종료되므로, 분할 상속하여 상속세 절감 가능
운용제한	집합운용 금지	미국: 투자목적이 같은 신탁자금을 모아서 공동으로 운용한 후 투자성과를 배분하는 공동운용기금(CIF)의 설립을 허용
수익자 연속신탁 과세	위탁자 사망시 상속세의 과세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음	일본: 수익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직전 수익권자가 승계 수익권자에게 해당 수익권을 유증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

자료 : 금융투자협회

상속형 신탁상품에 대한 수요 및 운용상 편의 증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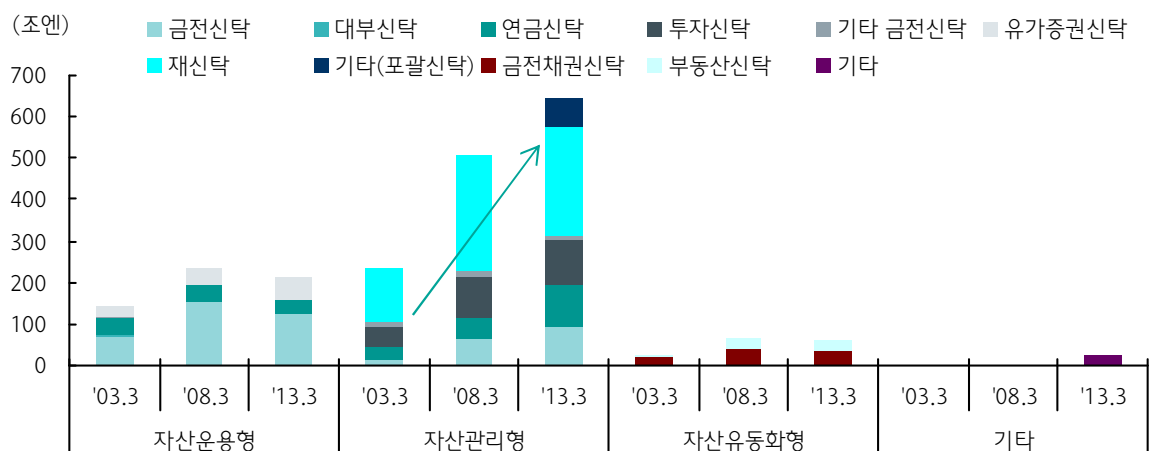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추세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고령인구의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상속과 관련한 상품 활성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기타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개인의 이혼 및 재혼 등이 증가하여 상속·증여 등의 문제가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투명한 부의 세습, 부의 사회환원 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마침 신탁법 개정으로 취급 가능해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등 상속 관련 상품의 활용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형 신탁 상품이 활용되기에는 제도상 제약적인 측면이 많다. 향후 실무적으로 활용이 불편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부유층 고령인구에게 동 신탁상품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 가능

하도록 하여 생전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 위탁자 재산의 상속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신탁상품이 상속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규모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어 세수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국내 유언신탁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신탁시장이 발달한 해외의 세제혜택 및 제도적으로 운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탁상품을 활용하는 개인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활용 유인을 높이고, 운용하는 신탁회사에는 제한적으로 집합운용을 허용함으로써 비용 효율성 및 관리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유언신탁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본 신탁의 목적별 수탁고 추이



| 자료 : 일본 신탁협회

“

호주 연금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

수석연구원 정 승 희
(smiley77@hanafn.com)

“호주의 사적연금시장은 지난 1992년에 도입된 강제형 퇴직연금제도인 Superannuation을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연평균 11.3%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자산의 성장은 의무가입 조건,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 연금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기인한다. 또한 Superannuation을 통해 축적된 연금자산이 금융시장에 투자되면서 자산운용시장도 급성장 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성숙에도 기여하고 있는 Superannuation제도의 발전은 향후 국내 사적연금시장의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

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정부, 기업, 개인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각 주체가 골고루 역할을 분담하는 3층 보장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2년에 도입한 Superannuation은 민간운영을 바탕으로 한 강제형 퇴직연금제도로 기여금의 사업주 부담(임금의 최소 9.25%)을 정부가 강제화하고 있다. Superannuation의 도입으로 호주의 연금시장은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였는데 현재 호주는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퇴직연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산업까지 동반 발전함으로써 명실공히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본고에서는 호주 사적연금시장의 발전 현황을 강제형 퇴직연금제도인 Superannuation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사적 연금시장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Superannuation(강제형 퇴직연금제도) 위주의 사적연금시장 형성

호주는 World Bank에서 3층 연금 체계의 대표적인 모델로 추천될 만큼 우수한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한 국가 중 하나이다. 1층의 기초연금제도(노령 연금 등)는 80% 이상의 노인이 국가로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층의 Superannuation은 기초연금만으로 불충분한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이다. 마지막 3층의 개인 연금은 개인의 자율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는 임의가입 형식의 개인저축이다. 사실상 호주에서는 연금 관련 세제 혜택이 Superannuation에 집중되어 있어 기타 개인 연금 시장의 발전은 미미한 상황이다.

Superannuation은 1992년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생산정보상연금제)의 낮은 기여금 수준과 제한적인 가입자 대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18세 이상 월 450달러 이상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기여금의 사업주 부담을 정부가 강제화하고 있다. 즉 사업주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기여금과 그에 따른 이자 및 징수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Superannuation의 노후자금 적립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한편 Superannuation은 가입자 유형 및 운영방식에 따라 소매형, 산업형, 기업형, 공공형, 소형 기금 등 5가지 기금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부 기업형 기금과 공공형 기금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직접 노후 자금을 적립할 기금을 선택할 수 있다.

Superannuation 도입 으로 시장 급성장

2012년 기준 Superannuation의 자산은 AU\$1조 4,004억(약 1,410조원)으로 1992년(AU\$1,540억)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호주 명목 GDP의 94.5% 수준이다. 연평균 성장률로 환산해보면 1992년 도입 이후 20년간 연평균 11.3%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가입률의 경우 70년대까지 고소득층과

공무원 등 가입대상의 제한으로 32%에 불과하였으나 80~90년대 호주 연금제도 개혁을 거치면서 2007년 94%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호주연기금협회(ASFA)에 따르면 Superannuation자산의 규모는 오는 2040년 AU\$6조 3,500억으로 GDP의 147%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2022년에는 노후소득에서 퇴직연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노령연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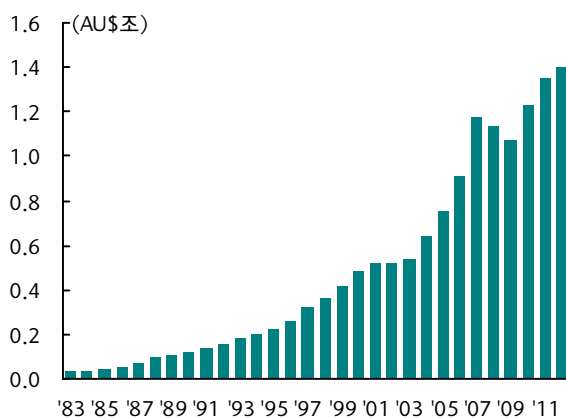
의무가입, 세제혜택 등이 Superannuation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견인

호주 Superannuation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급속하게 성장한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Superannuation은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고 기업이 납입금을 부담하는 강제형 퇴직연금 형태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으며, 민영제도이지만 기업 기여금의 징수에 국가가 강력히 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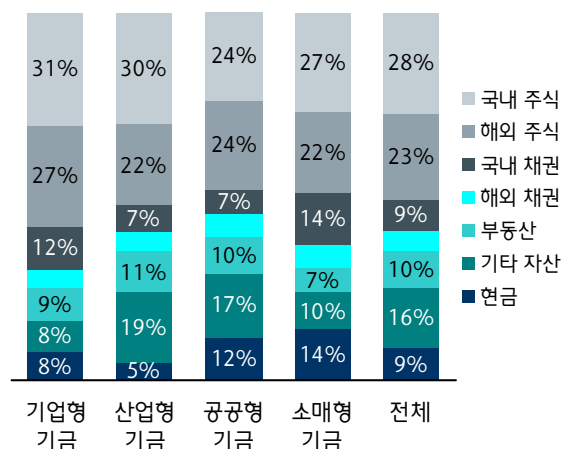
또한 Superannuation에 부여되는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도 사용주의 기여는 물론 개인의 자발적인 기여 확

호주 퇴직연금자산 증가 추이



| 자료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자산배분 현황(기본 펀드 기준)



| 주 : 2012 적립금 기준
자료 : APRA

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Superannuation의 경우 기여, 운용, 수령 단계에서 모두 과세하는 T-T-T 방식이나 최저소득세율 적용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먼저 납입단계에서는 사업주 의무적립금 전액을 손비 인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추가납입금을 포함하여 개인당 연 AU\$25,000 달러까지 최저소득세율(15%)이 적용되고 있는데 호주의 법인세율이 36%, 개인소득세율이 최고 45.0%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다음으로 운용단계에서는 운용수익의 15%를 과세하나 60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일반 투자수익 과세(한계세율적용) 대비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수령단계에서는 55~60세 수령 시 15%를 과세하며 60세 이후 수령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산업협약이나 사용자만이 퇴직연금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데 반해 Superannuation은 제도 및 기금운용에 최대한 민간자율성을 부여하여 2005년부터 개인이 개별 기금(운용방법) 및 펀드 종류(투자방법)에 대한 선택권까지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70%가 넘는 퇴직연금 기금이 가입자에게 투자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소매형 기금은 평균 200개가 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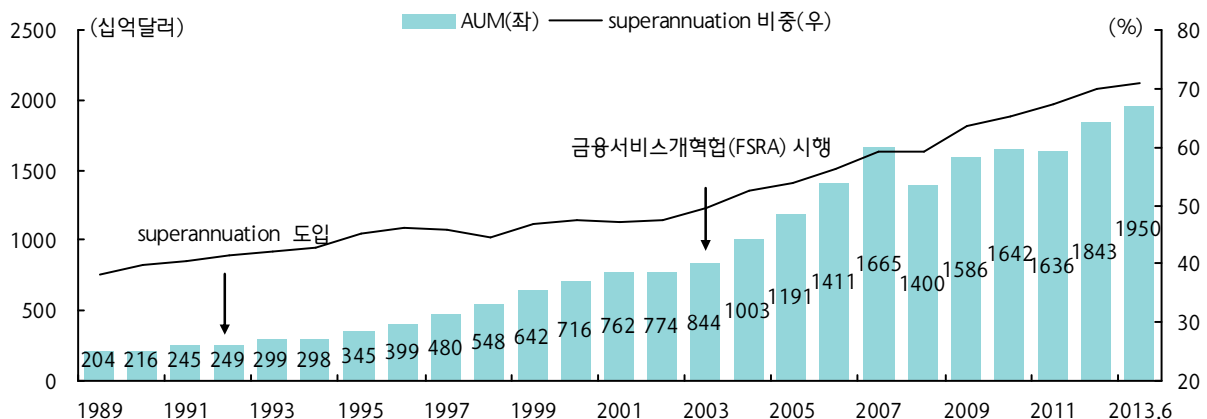
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기금 및 펀드선택권 확대 조치는 금융기관(혹은 펀드) 간 경쟁을 촉발하면서 높은 투자수익률 확보와 비용절감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일조하고 있다.

Superannuation 성장은 호주 자산운용 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이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점이다. 2012년 기준으로 호주 자산운용시장의 규모는 AU\$1.84조(약 1,850조원)로 미국,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큰 전 세계 3위 수준(뮤추얼 펀드 설정잔액 기준)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호주의 1인당 자본시장 투자금액 또한 6만 2,632 달러로 다른 선진국(미국 3만 9,947달러, 프랑스 3만 2,179 달러)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상당 부분 Superannuation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Superannuation자산은 전체 자산운용 투자자금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2012년에만 Superannuation에서 AU\$1.29조 규모의 자금이 자산

호주 자산운용산업 규모 및 Superannuation 비중 추이



주 :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FSRA)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해당
자료 : 호주중앙은행

.운용시장에 투입된 바 있다 Superannuation의 경우 적립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기본상품으로 운용되는 기본펀드조차도 그 운용을 주식투자 등 위험자산 중심(51%)으로 하는 등 퇴직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즉 호주의 경우 Superannuation 적립을 통해 주식투자 수요를 확충하고, 추가 상승이 Superannuation 자산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호주 자산운용시장의 양적인 성장은 물론 자본시장의 성숙도 및 안정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기금의 설정, 운용, 플랫폼 제공 등 Superannuation 펀드의 운영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서비스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제도 개선이 필요

지난해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출장지로 호주를 방문하는 등 정부는 호주 금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케 한 호주 Superannuation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관심이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책 마련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금융비전에 포함된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관련 제도의 개선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사적연금시장이 공적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호주의 사례에서 봤듯이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다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과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연금자산의 증대가 자산운용시장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재 선진국 대비 보수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금자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투자 및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이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와 국내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호주	국내
성격	강제형	임의가입형 ('12.7.26 이후 신규사업장은 강제가입)
법적형태	기금형	계약형
세제	기여, 운용, 지급 3단계 모두 과세 기여금에 대해 연 2.5만 달러 최저소득세율 적용 60세 이후 연금수령 시 운용 및 지급 비과세	지급 단계만 과세 연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금저축 포함) 지급 시 총연금액 연 1,200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
자산운용규제	제한 없음	주식 : DB형(30%한도), DC형(불가) 주식형 펀드 : DB형(50%한도), DC형(40% 한도)
적립금 보전	60세 이전 중도인출 불가	이직시 즉시 인출 가능 DC형, 부동산 구입 등에 대해 중도인출 가능
적립금 규모	1.6조 호주 달러(약 1,640조), '13.8 기준	70.4조, '13.6 기준
가입률	근로자의 94%	근로자의 45%
자산운용	주식 비중이 51%	원리금보장형이 92.4%
소득대체율	은퇴소득의 30~40% (AMP 추정)	은퇴소득의 약 12% (보험연구원 추정)

|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40대 김보통씨, 주택연금 활용과 금융자산의 적극적 운용 요구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40대를 대표하는 김보통씨(40세)는 60세에 은퇴하고 생명표에 따라 85세까지 생존하며, 은퇴 후 매월 약 270만원¹⁾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보통씨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라 은퇴 후 국민연금을 월 62만원씩 수령하며, 퇴직연금은 보험연구원에서 추정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인 25%, 12.5%를 감안하여 월 31만원을 수령한다. 또한 김보통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10년전 개인연금인 연금신탁에 가입했으며, 납입액은 각 연령대별 저축액만큼이고, 연금신탁의 수익률은 최근 3년간 은행 개인연금신탁 평균 수익률인 3.57%로 가정했다. 60세까지 납입할 경우 김보통씨는 매월 34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김보통씨는 현재 2억 1천원 대의 순실물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조정 없이 순실물자산 전

체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60세가 주택연금 가입 시 1억원 당 약 2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김보통씨는 매월 48만원을 수령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신탁, 주택연금을 필요 생활비에서 차감하면 은퇴 후 월 부족자금은 95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85세까지 필요한 월 부족자금 총액을 은퇴 시점의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약 2억 870만원이 된다. 현 시점에서 순금융자산 5,027만원을 운용할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약 7.38%의 수익률이 필요하며, 이는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전략의 목표 수익률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결과에서 보듯이 40대 평균인 김보통씨는 포트폴리오 조정 없이 순실물자산을 주택연금의 형태로 활용함과 동시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운용이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노후 준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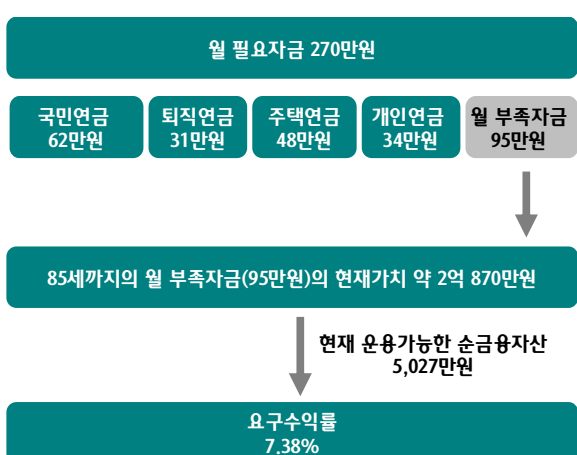
(단위 : 만원)

연령대	자산액	순금융자산	순실물자산	가처분소득	저축액
30세 미만	8,479	3,925	3,162	2,643	90
30~39세	23,028	5,407	12,762	3,924	133
40~49세	33,115	5,027	21,224	4,326	147
50~59세	42,479	5,485	29,056	4,491	153
60세 이상	32,587	3,421	25,055	2,167	74
전체 평균	32,557	4,733	22,004	3,645	124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노후생활비를 바탕으로 추정

김보통씨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적극투자형 전략이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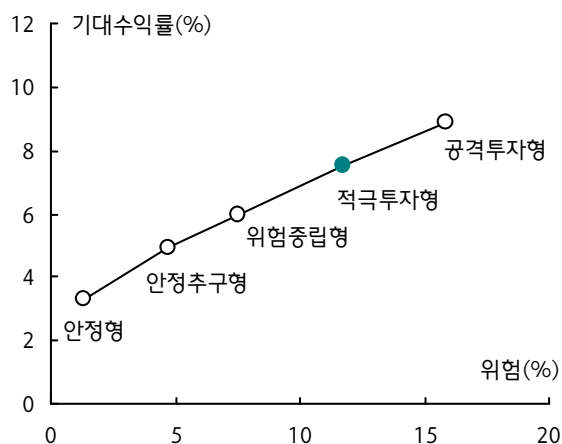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성향은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으로 분류된다. 김보통씨가 현 상태로 노후 준비를 유지해나갈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수익률은 7.38%로 계산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김보통씨는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2월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투자비중은 국내주식 30.0%, 해외주식 32.5%, 중위험형 9.5%, ELS/ELD에 10.0%, 국내외 채권형 12.5%, 현금성자산 5.5%로 설정하였다. 최근 글로벌 증시를 보면 선진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고,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선진국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진국<국내>이머징 순으로 자산군의 매력도를 재배열하였고, 이에 따라 선진국 주식의 비중을 27.0%에서 32.5%로 확대하고, 국내주식은 32.5%에서 30.0%로 축소하였다.

적극투자형 전략은 국내외 주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국내 증시의 경우 그간 글로벌 대비 소외현상을 보였으며, 국내외 악재 등으로 인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 경기회복 모멘텀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단기 흐름보다 기업의 장기 가치에 주목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해외주식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비중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소비 증가의 수혜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는바 금리에 민감한 하이일드 채권 및 미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여전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변동성 장세에 대비할 수 있는 중위험형 상품과 국내외 증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관리를 위한 ELS 등의 대안형 투자의 비중도 일부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국내주식	-	10.0	12.5	30.0(-2.5)	35.0
해외주식	-	-	15.0	32.5(+5.5)	37.5
원자재	-	-	-	-	-
중위험형	15.0	17.5	17.5	9.5	9.5
ELS/ELD	10.0	17.5	17.5	10.0	10.0
국내채권	40.0	22.5	12.5	5.0	2.5
해외채권	-	5.0	10.0	7.5	2.5
현금성	35.0	27.5	15.0	5.5(-3.0)	3.0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투자상품은 주식을 중심으로 하는 혼합형 상품 구성이 필요

2월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는 전월 대비 국내 주식 및 현금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이기로 한다.

포트폴리오의 30.0%를 투자하는 국내주식은 단기 증시 흐름보다 기업의 장기 가치에 주목하여 투자하는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C, 성장형 포트폴리오 위주로 하되 가치형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UBS 상승장구 코리아(주식)A, 대형주중심으로 업종 내 베스트 종목에 투자하는 트러스트칭기스칸(주식)A 등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32.5%를 투자하는 해외주식은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피델리티미국증권자(주식-재간접)A, 성장모멘텀이 기대되는 유로지역 기업에 투자하는 슈로더유로증권자(A)주식,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되는 선진국 소비 관련 업종에 투자하는 하이생활속의선진대표기업(주식)A 등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12.5%를 투자하는 국내외채권은 기업신용분석 및 저평가 종목 발굴을 통해 확정금리형 상품

에 비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고, 회사채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온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 미국 하이일드채권 및 미달러표시 채권을 중심으로 고수익,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되 짧은 듀레이션 전략으로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JP모간단기하이일드(채권)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9.5%를 투자하는 중위험형 상품은 룡쏫 전략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와 채권금리+ α 를 추구하는 마이다스거북이50자(주식혼합)A에 투자한다.

구조화상품은 주가가 일정수준으로 하락하더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ELS(ELF/ELT)상품에 투자하며 투자비중은 10.0%이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시중금리를 반영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MMF/MMDA/MMT의 비중을 5.5%로 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한편 김보통씨는 연금신탁에 가입하였으며, 40대는 매년 147만원을, 50대에는 153만원을 납입한다.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구분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	비중
금융자산 포트폴리	국내주식	일반주식형	하나UBS 상승장구코리아(주식) A	하나UBS	6.0%
		일반주식형	트러스트칭기스칸(주식) A	트러스트자산운용	7.0%
		일반주식형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 C	한국밸류	7.0%
		-	주식랩 또는 개별주식포트폴리오	-	10.0%
	해외주식	미국	피델리티미국증권자(주식-재간접)A	피델리티	8.5%
		유럽	슈로더유로증권자(A)주식	슈로더	8.0%
		일본	KB스타재팬인덱스증권(주식-파생) A	KB운용	8.0%
		섹터	하이생활속의선진대표기업(주식) A	하이	8.0%
	대안	중위험형	마이다스거북이50자(주식혼합) A	마이다스	9.5%
		구조화	ELS(ELF/ELT)	-	10.0%
	국내채권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	흥국자산운용	5.0%
	해외채권		JP모간단기하이일드(채권) A	JP모간	7.5%
	현금성		MMF/MMDA/MMT	-	5.5%
	합계				100%
연금저축보험		매년 147만원 납입(50대부터는 153만원 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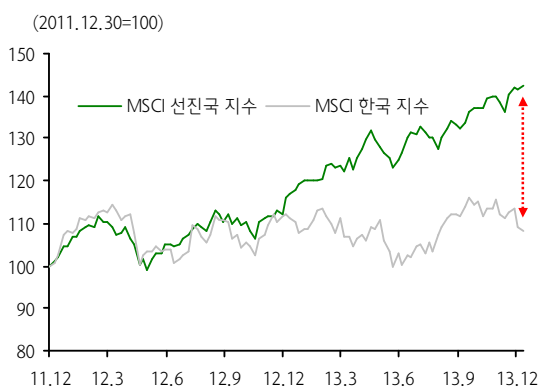
주 :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적극투자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위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2월 주식시장은 변동성 높은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지난 1월 한달 간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여러 악재를 경험했다. 우선 글로벌 경기가 기대만큼 좋지 않았으며, 미국 Fed가 테이퍼링을 실시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신흥국 외환위기 우려도 부각되었으며,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발표된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도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나 국내 증시 부진에 한 몫을 담당했다. 이러한 악재로 인해 1월 MSCI 선진국과 신흥국지수는 각각 -3.8%와 -6.6% 하락했고, KOSPI도 -3.5%를 기록하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최근 MSCI 선진국과 한국 지수간 격차로 인해 국내 증시의 소외 현상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2월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경기 모멘텀보다는 위험수준이 높다는 점, 신흥국보다 선진국 경기 모멘텀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통화정책 변화 및 높은 엔캐리 청산 가능성, 국내 기업 이익 추정치가 추가 하향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 중 변동성이 높은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MSCI 선진국 및 한국 지수 추이



|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금리는 당분간 박스권 등락을 보일 듯

일부 정치권 등의 엔저 방어를 위한 금리 인하론 부각과 외국계 금융사의 인하 전망 등이 있었으나, 지난 1월 금동위에서 기준금리는 만장 일치로 동결되었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경기는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우리나라는 환율과 통화정책과의 상관관계가 낮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4년 GDP 성장률을 기존의 3.8%로 유지하였고, 물가는 2.3%로 소폭 하향했으나 방향은 상승임을 강조하였다.

금리 인하 논쟁에도 불구하고 연내 기준금리는 동결이 예상된다. 금리 인하보다는 부자증세 등을 통한 재정정책과 가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리는 지난 6개월간 이어온 박스권을 추세적으로 이탈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2년 전후 구간의 크레딧물로 이자수익을 취하는 캐리(Carry)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크레딧 스프레드 및 장단기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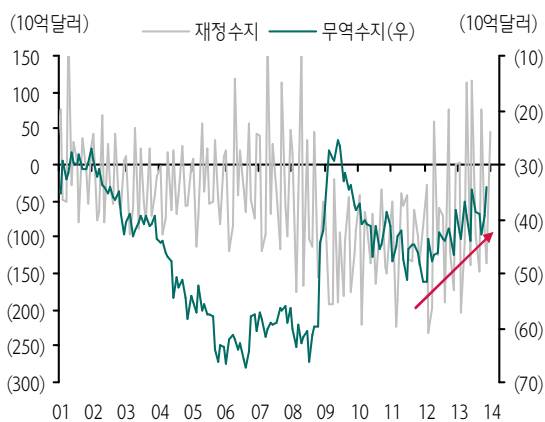


| 주 : 장단기스프레드 : 국고채 10년-국고채 3년
크레딧스프레드 : 회사채AA 3년 - 국고채 3년
자료 : 민평 3사, 하나대투증권

해외시장은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나 회복 속도는 다소 조정될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난 후 미국 경제가 점점 견고해지고 있다. 재정확대와 양적완화 축소에도 소비 및 주택시장에 이어 고정투자와 수출도 점차 회복되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도 줄어들며 고질적 문제인 글로벌 불균형 문제도 완화되고 있다. 다만 최근 발표된 미국 PMI제조업지수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 판매량 감소 등 다소 부정적인 경제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채한도 상향, 테이퍼링 속도 조절 등의 이슈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은 테이퍼링에 따른 유로/달러 환율 하락, 유로존 수출 개선 등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확장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4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BOJ가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공격적인 완화 정책은 다소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여 향후 엔/달러 환율 상승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재정수지 및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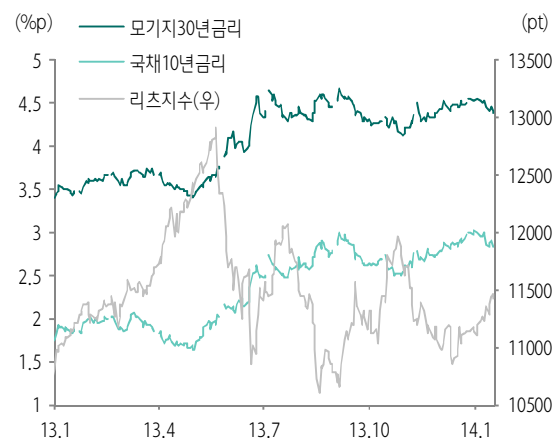
자료 :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중국은 그림자금융과 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유동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물 지표가 둔화되는 등 경제성장 또한 정체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요철구간이라고 생각된다. 인도는 물가 하락 전환과 정치적 안정 기대로 다른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 변동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브라질은 정책금리 인상에도 금융시장의 큰 혼란은 없는 편이며, 다만 향후 물가 상승이 제한되지 않을 경우 정책금리를 한 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츠시장은 펀더멘털 개선 기대로 반등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

리츠 가격은 지난해 12월 Fed의 테이퍼링 개시 확정 이후 꾸준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연초 이후 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리츠의 부담요인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경기개선에 따라 리츠의 펀더멘털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 기대감은 유효해 보이며, 금리민감도가 낮은 업종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금리 및 리츠 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 은퇴위험지수(NRRI), 2010년 대비 크게 나아지지 않아 ”

“주택가격 상승률 상대적 저조로
은퇴위험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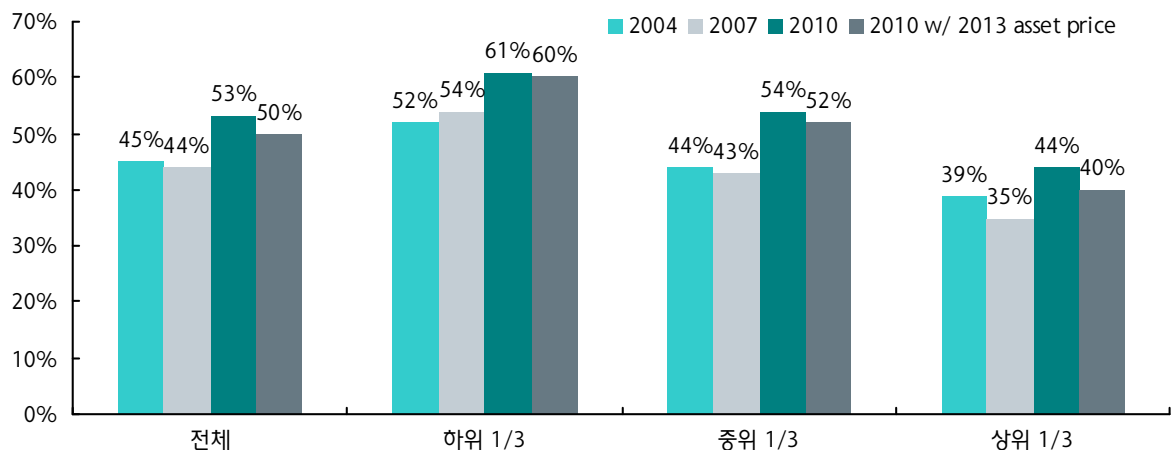
보스턴대학 은퇴연구소가 발표하고 있는 은퇴위험지수(NRRI)에 따르면 2010년 미국 전체 가구 중 53%가 목표 소득대체율에 미치지 못해, 희망하고 있는 생활수준을 은퇴 이후에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주택 및 주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013년 추정 은퇴위험지수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계산 결과 50% 수준으로 크게 감소되지 않아, 미국 근로연령대 가구들의 노후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은퇴위험지수(The National Retirement Risk Index)란 미국 65세 이하 근로연령대 가구가 은퇴 이후에 은퇴

이전에 목표했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위험을 수치화한 것으로, 연방준비제도에서 3년에 한번 시행되는 ‘Consumer Finance Survey’ 데이터를 기초로 보스턴대학 은퇴연구소가 발표하고 있다. 즉 은퇴 이후 예상 소득을 은퇴 이전 소득으로 나눈 비율(예상 소득대체율)과 가구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비교하여 구한 값으로, 은퇴위험지수가 높을수록 많은 수의 가구가 은퇴 이전에 목표한 생활수준을 은퇴 이후에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최근 수치인 2010년 은퇴위험지수는 53%로, 이는 65세에 은퇴를 하고, 모든 금융자산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며, 보유 주택은 역모기지를 통해 소득화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미국 가구의 53%가 목표한 생활수준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높은 은퇴위험지수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로는 기대여명 증가로 노후 필요 소득이 증가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사회보장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락, 퇴직연금이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됨에 따른 기대소득 감소 및 저축률 감소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 대체율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또한 의료비 증가 및 저금리로 인한 자산 수익률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미국 주식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

소득구간별 NRRI 지수



| 자료 :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

른 가계 자산가치 상승으로 평균 은퇴위험지수가 하락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2013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할 결과, 은퇴위험지수는 50%로 축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우선 주식의 경우, 2010년 3분기 (2010년 은퇴위험지수 산출 기준값) 대비 2013년 주가는 45%(인플레이션 조정값)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가 상승의 과실은 고소득 가구에게 대부분 돌아갔으며, 미국 평균 가구의 은퇴위험 개선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식의 89%가 집중되어 있는 소득상위 1/3 가구의 경우, 총자산 중 주식의 비중은 17%로, 중위소득가구 6% 및 하위소득가구 2%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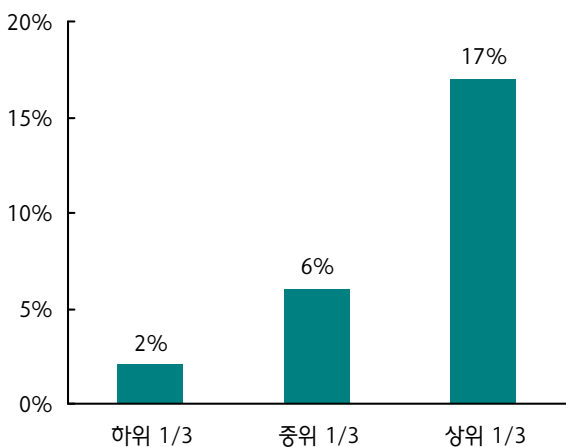
이에 반해 주택 가격의 경우, 미국 전체 가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식보다 월등히 높는데, 평균 가격상승률은 2010년 기준값 대비 6%(인플레이션 조정값) 상승에 그쳐 은퇴위험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자산가치의 비중은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주택가격 변동이 은퇴 위험을 크게 좌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소득층 가구 중 총 자산에서 주택자산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중위소득 가구의 비중 42% 및 하위소득 가구의 비중은 64%임). 즉 소득그룹별로 자산가격 변동이 가구의 은퇴위험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달라, 저소득 가구의 은퇴지수 개선은 1%p에 불과한 반면 고소득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4%p로 나타난 것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기준 가계 총 자산 중 거주주택 및 거주주택 외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평균 75.1%로, 미국보다 실물자산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소득 1~3분위)의 경우 부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가계 순자산은 실물자산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가계의 노후 안정성이 크게 취약한 구조이다. 부동산 다운사이징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 주택연금상품 활용 등을 통해 은퇴 이후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현금흐름 확보에 다각도의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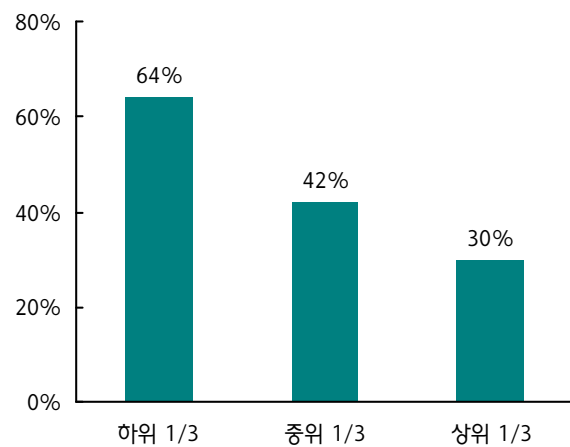
(“Will the Rebound in Equities and Housing Save Retirement?” ,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2013.12)

소득구간별 총자산 중 주식 비중



주 : 미국 30-59세 가구
자료 : 미 연방준비제도, 2010

소득구간별 총자산 중 주택 비중



주 : 미국 30-59세 가구
자료 : 미 연방준비제도, 2010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예정 ”

“소장펀드는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 부여되나,
원금비보장 상품으로 가입 시 주의 필요”

2014년 1월1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및 금융투자업계는 준비단을 구성하여 1분기 중에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저금리 추세에 은행의 예·적금만으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2030 젊은 세대의 저축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어 왔다.

소장펀드는 무엇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눈에 띈다. 매년 600만원(분기별 200만원) 범위 안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1년에 소장펀드에 600만원을 투자하면 연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여기에 세율

16.5%를 적용하면 총 39만6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연소득 1,200~4,600만원 구간 세율 적용 가정). 투자금 600만원에 대한 펀드 투자수익률 외에 연 6.6%가량의 이자를 추가로 얻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과 달리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연 4.5% 확정금리 재형저축 상품에 연간 최대 납입액인 1,200만원 저축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로 약 7만6천원 절세효과가 발생).

하지만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5년내 해지 시 소득공제 감면액을 추징당하므로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등 제한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소장펀드는 침체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층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시장 상황과 운용사의 운용 역량에 따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큰 투자 상품임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가입 시 투자 내용과 보수 및 수수료 등을 검토하고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1.2)

소득공제 장기펀드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가입자격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 기준이며,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
가입기간	최소 5년 ~ 최장10년 (5년 이내 해지 시 실제 감면소득세액 추징)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해당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소 주식투자 비율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

| 자료 : 금융위원회

“

목표지향형 은퇴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

”

“ 은퇴 준비는 구체적 소득목표
설정에서부터 시작해야”

2014년 1월8일 한국연금학회는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MIT 교수를 초청하여, ‘은퇴자금 확보를 위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였다. 로버트 머튼 교수는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의 시작은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자산을 축적하는 것’에서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은퇴소득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머튼 교수는 은퇴 이후 소득목표를 희망 소득목표(desired income goal)와 현재 저축액 및 은퇴시기 고려 시 96% 확률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 보수적 소득목

표(conservative income goal)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수적 소득목표는 국민연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중 높은 확률로 달성 가능한 수입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만약 나머지 금융자산으로 희망 은퇴소득에 도달하기 어렵다면 저축액을 늘리거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희망 은퇴소득을 달성하게 되면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최소화하고, 안전자산에 투자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처럼 소득목표에 초점을 맞춰 최소한 보수적 소득목표 이상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희망 소득에 도달할 확률을 극대화 하기 위한 개인별 맞춤형 자산관리 전략을 짜는 것이 목표지향형 은퇴 자산 관리의 핵심이다. 즉 은퇴 후 소득목표를 정해두고 맞춤형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면, 안전자산 및 위험자산에의 자산 배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구체적인 은퇴소득 목표의 설정이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로버트 머튼 교수는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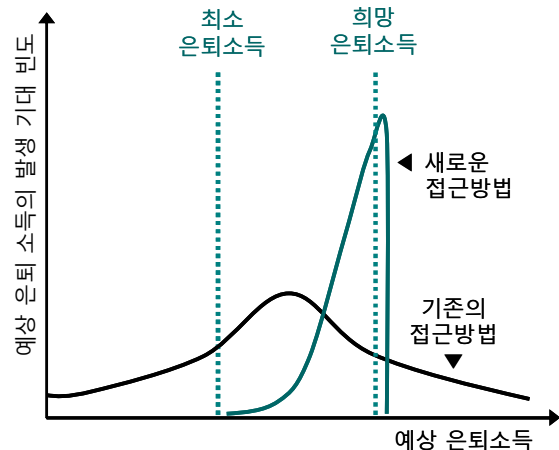
(“로버트 머튼 교수의 은퇴자금 확보를 위한 대응”, 한국연금학회, 2014.1.8)

목표지향형 은퇴 자산 관리 전략

	기존의 은퇴자산관리 전략	목표지향형 전략
투자 목표	자산의 축적 (구체적 자산 목표 부재)	은퇴소득
리스크 측정	포트폴리오 수익률 변동성	소득 절벽
성공 측정	계좌 잔액의 크기	희망 소득목표의 달성 확률
자산 배분 전략	고정 비율 혹은 연령 등에 근거한 자산배분	희망 소득목표 달성 확률을 높이기 위한 고객 맞춤형 자산배분

자료 : 한국연금학회

목표지향형 은퇴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



자료 : 한국연금학회

연금형 정기예금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공백기 대비

노후생활자금을 창출하는 연금형 정기예금

연금형 정기예금 상품은 만기까지 예금액을 거치한 뒤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기예금과 달리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원리금(원금+이자)을 고객에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이는 최근 예금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만으로는 연금효과를 내기 힘들어 원리금 지급방식으로 월 수령액을 높인 것이다.

연금형 정기예금 상품은 보험사의 즉시연금, 증권사의 월지급식 펀드와 유사하게 매월 일정한 생활자금 흐름을 창출하는 은행권의 상품으로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보험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교형 상품이다.

연금형 정기예금 상품은 일정한 금리를 기반으로 원리금을 분할 지급받는 만큼 원금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는 월지급식펀드에 비해 안정적이다. 그러나 그만큼 추가 수익률을 달성해 물가상승 이상의 연금수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시연금과 비교해서는 장기간 목돈이 묶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보통 가입 기간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로 종신지급을 보장하는 보험사의 즉시연금에 비해서는 다소 짧다는 점이 단점이다.

주요 은행에서 앞다투어 상품 출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월지급식 상품이 금융상품 시장의 주요 상품으로 자리잡는 추세이다.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를 맞으면서 사회적 차원에서도 노후 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택자금이나 교육비 마련에 치중했던 저축의 목적도 노후자금 마련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로 이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수급연령인 61~63세까지 10년 가까이를 기다려야 한다. 즉 이 기간 중 대다수의 베이비붐 세대가 소득 공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들 은퇴 전후 세대를 타깃으로 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연금형 정기예금은 그 대표적인 상품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지난 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 만원에서 2천 만원으로 내려가면서 이자 수령 시기를 분산시키는 것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측면에서 다양한 월지급식 상품을 비교하여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은행의 연금형 정기예·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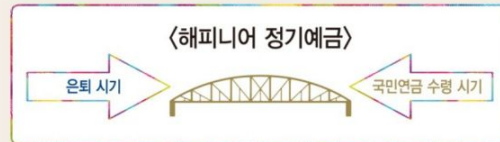
	상품명	상품설명
외환은행	해피니어정기예금	최고 연 2.75%의 금리 제공 목돈 예치 후 연금지급 개시 전까지 원리금 형태로 지급
KB은행	골든라이프 예적금	거치, 적립 기간과 원리금 지급기간으로 구분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 없음
농협	내생애 아름다운 정기예적금	조부모, 손주에 우대금리 제공 재해사고에 보험금, 애경사에 긴급 자금인출서비스 제공
우리은행	월복리연금식 적금	최고 금리 연 3.0% 제공 월 복리로 적립, 적립 후 연금식 지급 가능

준법감사인 심의필번호 : 제 2014-광고-0010호(2014.01.07)



퇴직금 등 목돈 예치후 매월 생활비를 든든하게 수령하고 ~

국민연금 수령시기에는 만기해지금액을
높여서 만기 목돈수령의 기쁨까지 누리세요!



* 행복나무

지문을 모티브로 표현한 행복나무는 고객님의 지혜와 연륜으로 지켜온 약속의 시간과
외환은행의 다양한 혜택이 만나 아름다이 나무처럼 자라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 ▶ **상 품 명** : 해피니어 정기예금
- ▶ **가입대상** : 만45세이상의 실명의 개인
- ▶ **예금종류** : 정기예금
- ▶ **계약기간** : 1년이상 5년 이내 (연단위)
- ▶ **가입금액** : 1백만원이상 제한없음
- ▶ **적용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14.01.04, 세 전)

기본금리	연 2.65%	우대금리 (최대)	연 0.1%	적용금리 (최대)	연 2.75%
------	---------	-----------	--------	-----------	---------

— 기본금리 : 가입일 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의 고시금리 (매1년단위로 변동 적용됨)

— 우대금리 : 최대 연 0.1%

- ① 가입후 6개월이상 경과된 예금주 본인명의 외환은행 예·적금 해지후 1개월이내에 이 예금을 신규하는 경우 연 0.1%
- ② 외환은행의 은퇴설계시스템을 통한 은퇴설계 상담후 이 예금을 신규하는 경우 연 0.1%

▶ 상품유형 및 원금과 이자 수령방법

— 상품유형 : 거치후 연금식 또는 즉시 연금식 중 택일

- ① 거치후 연금식 : 최소 1년이상 거치후 나머지 계약기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 수령
→ 거치기간중 이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지급됨
- ② 즉시 연금식 : 거치기간 없이 전 계약기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 수령

상품 유형	거치기간	원금과 이자 수령기간	원금과 이자 지급시기
거치후 연금식	1년이상 (필수)	1년이상 4년 이내 연단위	매월 신규가입 해당일
즉시 연금식	없음	1년이상 5년 이내 연단위	매월 신규가입 해당일

— 만기해지금액 지정 : 가입원금의 70%이내에서 만기에 수령 희망하는 금액을 지정 가능

- 만기해지금액의 원금은 만기일에, 이자는 매월 수령

▶ 수수료 면제 서비스 : 이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본인명의 외환은행 입출금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입금월 다음달에 전자금융 다른은행 이체 수수료, 외환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다른은행 자동화기기^(주) 출금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주) 은행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 함

※ 이 예금은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정보의 주요 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나 정보에 대하여는 은행의 익관이나 개별 계약서를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거나 은행홈페이지(www.keb.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MART BANK

KEB 외환은행

행복한 은퇴디자인을 위한 연령대별 전략

평균 수명 연장, 조기 퇴직, 핵가족화, 부동산시장 불황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은퇴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은퇴준비, 은퇴설계, 은퇴전략 등 용어는 달라도 모두 근로소득과 같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지는 은퇴 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재무적·비재무적 준비를 의미한다. 취미, 봉사활동, 인간관계, 건강 등 비재무적 준비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무적 관점에서 은퇴준비란 은퇴 이전에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은퇴준비자금'을 형성하고, 은퇴 이후인 노년기에 사용되는 '은퇴필요자금'을 과거의 저축자금인 은퇴준비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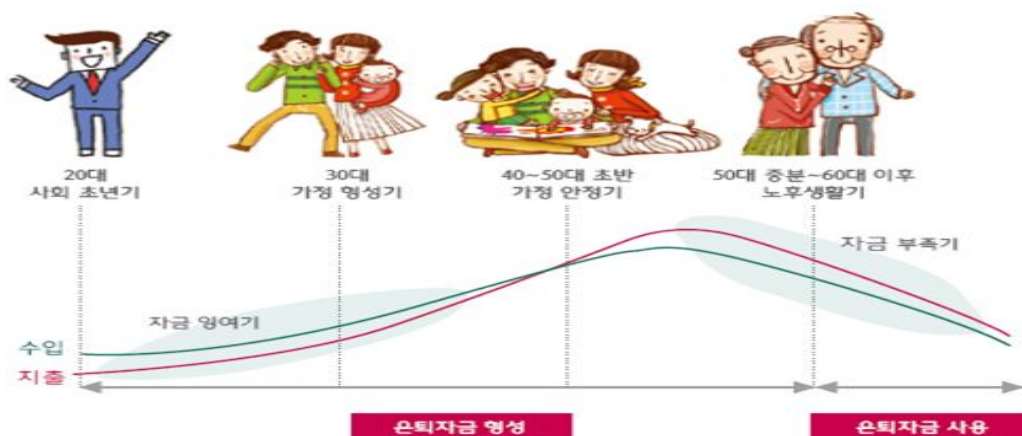
은퇴준비자금을 계산할 때에는 준비기간, 투자금액, 투자수익률이 변수로 사용되며, 은퇴필요자금은 노후기간, 생활비, 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라진다. 은퇴준비자금에 대해서는 첫째, 은퇴준비를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준비기간이 길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은퇴준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투자금액은 많을수록 좋지만 수입을 고려하여 소비성 지출을 계획에

맞게 통제함으로써 추가 저축액을 늘리는 방법이 좋다. 셋째, 수익률 역시 높을수록 좋지만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기간이 길수록 위험선호도를 높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기간이 길다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만회할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이프사이클 측면에서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은퇴준비가 필요하다.

20~30대 키워드; 종자돈 모으기, 3대 연금 가입하기

남성의 경우 군복무와 대학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입하면 30세 가량이 되며, 여성의 경우는 군복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25세 정도가 된다. 20~30대는 취직과 결혼 후 내 집 마련, 자녀 출산 및 육아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으므로, 종자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금수요에 쫓기는 악순환이 평생 거듭될 수 있다. 목적의식 없이 지출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 주택마련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재무목표를 가지는 것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수입&지출 곡선



| 자료 :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중요하다.

연금 은퇴 후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이 된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대 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 보험료율은 월 소득액의 9%이다. 국민연금은 지급하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존하여 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고갈, 소득 대체율 하락 등으로 여유 있는 노후생활 보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사외적립을 통해 수급권 보장, 연금 지급,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세액공제효과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은퇴 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의 가입이 필요하다.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까지 불입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므로 세제상 혜택도 있다. 흔히 은퇴생활을 영위할 때 퇴직 전 소득의 75% 이상을 확보하면 부족하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연금소득 대체율(연금소득/은퇴 전 소득)은 42%로 OECD 평균인 63.6%에 비해 상당히 낮다. 따라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대 연금 외에 노후준비를 위해 적립식 펀드를 권장한다. 20~30대는 위험선호도가 높으며 원금손실을 감내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투자기간을 가지기 때문이다. 적립식 펀드는 투자기간을 장기로 하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므로 주가 하락시 펀드 매입좌수를 늘려주는 평균매입단가 인하효과를 통해 주식시장 반등 시 수익률 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40대 키워드;

자산증식, 연금가입의 마지막 기회, 건강보험 가입

40대는 20~30대에 모아놓은 종자돈을 바탕으로 자산

증식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므로 금융상품 또는 부동산 시장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상품은 주식을 포함한 변동성이 높은 펀드를 중심으로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형 펀드 또는 이머징마켓 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1~2년의 단기 수익률은 저조할 수 있으나,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은행 등 판매회사의 담당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재무상황 및 위험성향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 시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 많이 조사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 등 전문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혹시 주택 마련 및 급전 등으로 대출을 일으켰다면 부채부터 갚아야 할 것이다.

연금 가입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투자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복리효과를 통해 은퇴생활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퇴시점을 고려할 때 40대는 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될 것이다. 은퇴생활에서 최소한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20~30대는 건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다. 그러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운동량이 적어지면서 암을 포함한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요양비를 고려하면 소요되는 비용이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건강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60대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은퇴생활에서의 예상치 못한 질병 또는 상해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50대 키워드; 안정성과 수익성, 부동산 비중 낮추기, 월지급식 금융상품

50대는 은퇴 시점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시기이다. 은퇴시점에 가까워질수록 투자실패에 따른 만회가 어려워므로 노후자금 조달 계획에 자칫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을 무리하게 증식하기보다는 그 동안 모아놓은 자산을 보존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점차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낮추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절해야 한다. 주식투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정기예금 또는 채권형 펀드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과 주식간의 적절한 자산배분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수익을 높이는 전략이 적합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은퇴빈곤층의 절반이상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퇴시점이 다가올수록 보유 중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점차 줄여 환금성과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50대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투자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예전처럼 부동산에서 큰 돈을 벌기 힘든 시장환경일 뿐만 아니라 은퇴 시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다른 자산이 없다면 고정 수입이 없으므로 생활자세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퇴 이후 일정한 수입을 위해서 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하다.

은퇴생활이 여유롭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많아야 한다. 아무리 자산이 많더라도 매월 고정된 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 시 부족한 생활비를 금융자산의 연금화를 통해 월급처럼 고정된 수입이 발생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시연금 보험 등과 같은 월지급식 금융상품은 매월 일정한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수익성과 환금성이 장점인 월지급식펀드와 비과세, 안정성이 특징인 즉시연금보험에 적절하게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 요즘 국내기업의 정년은 만 55세로 50대에 은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60세 이후 개시되는 국민연금 등 연금 지급까지 월지급식 금융상품으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60대 이후 키워드; 건강, 은퇴자금 관리, 주택연금

은퇴 이후 장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생활자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 꾸준한 운동, 올바른 생활습관 등 건강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강하지 않다면 30년 이상 일하면서 꿈꾸던 은퇴생활을 누릴 수 없다. 재무적 관점에서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상해는 은퇴필요자금의 조기 소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매월 들어오는 수입을 고려하여 짜임새 있게 지출해야 한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면 계획해 놓은 노후자금이 조기에 고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노후자금이 계획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며, 더 나아가 남은 자금과 여생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여 인출금액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은퇴자산 관리에 대한 전문가와의 상담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택연금은 은퇴한 부부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주택소유자 기준 만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집값에 따라 결정된다. 60대 이후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노후 자금 가운데 10%는 마지막까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 은퇴 후 본격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여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노후자금의 10%는 최후까지 남겨두고 상속하거나 기부하도록 한다.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

하나은행, 나눔수룩 커지는 ‘행복나눔적금’ 새롭게 출시

하나은행은 봉사활동, 기부 등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나눔적금’을 출시했다. 동 상품은 나눔활동에 대한 우대금리와 함께 500명 이상의 고객이 적금 신규 가입 시 특정 공익단체, 종교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은행이 자체 출연해 지정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대투증권, ‘하나 선진1등주 랩’ 출시

하나대투증권은 글로벌 1등 기업들에 투자해 장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하나 선진1등주 랩’을 출시했다. 동 상품은 세계 소비시장에서 혁신을 통해 강한 경쟁력을 확보했거나 이를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해 장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수익이 양도소득세로 분류 과세돼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환은행,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총 13회 수상

외환은행은 지난 1월 21일 세계적 권위의 글로벌 금융 경제 전문지인 글로벌 파이낸스誌 주최 시상식에서 총 13회째 한국 내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외환은행은 거래량, 글로벌 커버리지, 고객 서비스, 가격 경쟁력 등 5개 평가항목에서 최고평점을 받아 금년 수상을 포함하여 총 13회째 수상하게 되었다.



하나생명, 장기 유지 시 보너스 주는 ‘(무)행복디자인연금보험’ 출시

하나생명은 장기 유지 시 보너스 적립액을 지급하는 ‘(무)행복디자인연금보험’을 출시했다. 동 상품은 오래 유지할수록 계약자의 원금에 장기유지 보너스 적립액을 지급해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월 납입 보험료 30만원 초과시 고액 계약자로 분류해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경제 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8	61.5	6.5	63.6	75.2	80.1	72.0	37.7	59.5	5.9	59.1	72.9	78.4	70.6	37.2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	61.5	7.7	61.6	75.4	80.0	74.5	39.1	59.5	6.9	56.8	73.2	78.4	73.1	38.3
2013.11	62.1	6.7	62.0	75.9	80.6	75.5	40.4	60.4	6.2	57.3	73.9	79.4	74.4	39.9
2013.12	60.9	8.8	61.4	75.8	80.3	74.3	35.7	59.1	7.5	56.5	73.8	78.9	73.2	35.1

(단위: %)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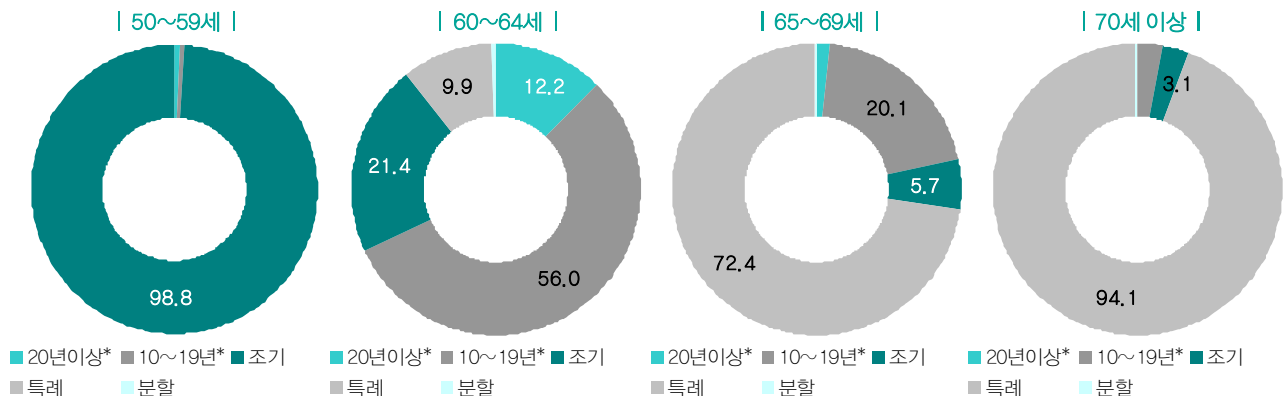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10	20,715,284	1,286,350	11,897,360	8,522,524	1,957,480	6,565,044	183,289	112,111
2013.11	20,820,089	1,290,247	11,954,290	8,572,954	1,969,813	6,603,141	178,408	114,437

2. 2013년 11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건, 억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12	1,124	17,474
2010.12	2,016	30,361
2011.12	2,936	41,000
2012.12	5,013	69,006
2013.1~12	5,296	62,950
2013.11	475	5,526
2013.12	400	4,655

(단위:명)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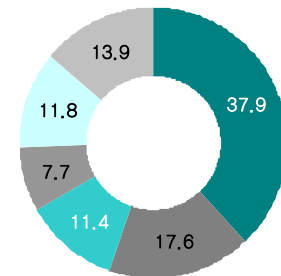


2. 2013년 12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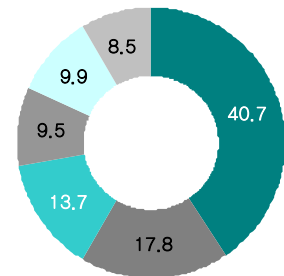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766	89,580
신한은행	805	39,226
우리은행	531	30,117
하나은행	357	20,821
농협	547	21,852
기타	649	18,682
합계	4,655	220,278

보증공급액 기준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농협 ■ 기타

잔액 기준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농협 ■ 기타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1. 2013년 12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7,870,041	5,304,698	1,422,319	84,750	1,323,926	88,860	103,248	33,838
생명보험	3,156,559	2,851,543	192,357	3,545	237,271	8,337	13,008	1,665
손해보험	1,096,299	999,822	60,312	267	57,778	1,849	1,969	83
증권	2,680,383	2,434,280	136,054	363	119,433	3,298	6,916	112
근로공단	102,461	-	100,169	427	26,427	-	26,213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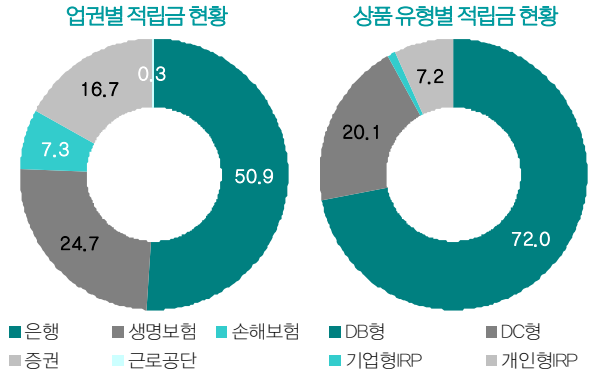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3	215,962	70,868	32.8	4,924	2.3	109,820	50.8	30,350	14.1
2013.6	226,994	73,301	32.3	5,300	2.3	117,808	51.9	30,585	13.5
2013.9	235,716	74,543	31.6	5,549	2.4	123,650	52.5	31,974	13.6
2013.12	257,286	82,355	32.0	6,724	2.6	132,720	51.6	35,505	13.8

3. 2013년 12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842,996	606,573	169,114	6,940	60,368
은행	429,294	268,266	112,454	6,693	41,880
생명보험	207,995	176,772	22,730	196	8,298
손해보험	61,662	54,493	5,141	12	2,017
증권	141,138	107,043	25,916	23	8,157
근로공단	2,906	-	2,873	16	16



4. 2013년 12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구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예적금	295,285	48.6	104,352	61.7	6,054	87.2	37,463	62.0	443,154	52.6
	금리확정형보험	219,325	36.2	17,216	10.2	132	1.9	7,477	12.4	244,150	29
	금리연동형보험	20,972	3.5	5,429	3.2	61	0.9	1,683	2.8	28,144	3.3
	국채	501	0.1	1,065	0.6	0	0.0	1,417	2.3	2,983	0.4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ELS	46,061	7.6	2,020	1.2	0	0.0	1,848	3.1	49,930	5.9
	RP	9,439	1.6	2,036	1.2	1	0.0	850	1.4	12,326	1.5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37	0.1	0	0.0	39	0.1	177	0.0
	기타	0	0.0	1	0.0	0	0.0	5	0.0	7	0.0
원리보장금 소계		591,582	97.5	132,258	78.2	6,247	90.0	50,783	84.1	780,871	92.6
실적배당	실적배당형 보험	161	0.0	1,542	0.9	10	0.1	353	0.6	2,065	0.2
	주식형	904	0.1	66	0.0	0	0.0	40	0.1	1,011	0.1
	혼합형	735	0.1	8,418	5	15	0.2	1,219	2	10,388	1.2
	채권형	3,937	0.6	22,599	13.4	604	8.7	3,274	5.4	30,414	3.6
	재간접	106	0.0	215	0.1	0	0.0	25	0.0	347	0.0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1,392	0.2	0	0.0	0	0.0	0	0.0	1,392	0.2
	집합투자증권 소계	7,236	1.2	32,841	19.4	630	9.1	4,911	8.1	45,617	5.4
	직접투자	435	0.1	64	0.0	0	0.0	308	0.5	807	0.1
	실적배당 소계	7,670	1.3	32,905	19.5	630	9.1	5,219	8.6	46,424	5.5
대기성 자금		7,321	1.2	3,951	2.3	63	0.9	4,366	7.2	15,701	1.9
총계		606,573	100.0	169,114	100.0	6,940	100.0	60,368	100.0	842,996	100.0

5. 2013년 12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401,816	93.6	198,008	95.2	60,156	97.6	118,084	83.7	2,808	96.6
실적배당형	18,500	4.3	8,433	4.1	1,492	2.4	17,980	12.7	20	0.7
기타	8,978	2.1	1,555	0.7	15	0.0	5,075	3.6	78	2.7
합계	429,294	100.0	207,996	100.0	61,663	100.0	141,139	100.0	2,906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www.hanaif.re.kr

